

## 유아의 어휘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

성 미 영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만 2세 및 3세 유아와 그 어머니 20쌍을 대상으로 블록놀이 상황을 설정하고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여 유아의 발화를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나타난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유아는 어휘 양식에 관계없이 제공 의도를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표현 의도를 가장 드물게 보였다.

둘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공 의도의 경우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가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보다 정보 제공 의도를 더 빈번하게 보였으나, 표현 의도의 경우에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구 의도의 경우에는 대인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가 대물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보다 행위 요구 의도를 더 빈번하게 보였으나, 부응 의도의 경우에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어 : 어휘 양식 · 의사소통 의도

### 문제의 제기

아동학자들은 오랫동안 유아의 초기 어휘 획득과 발달에 관심을 두었다. 언어 발달의 보편성을 주장한 Chomsky를 포함해서 선천적 언어 획득론자들은 아동이 언어 획득 장치(LAD)를 가지고 출생하므로 단

지 언어에 노출되기만 하면 언어를 획득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언어 획득 과정에는 일관된 발달 순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Della Corte, Benedict, & Klein, 1983). 그러나 70년대 들어 언어 획득 과정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Bloom, Lightbown, & Hood, 1975; Dore, 1974; Nelson, 1973)이 나타나면서 선천적 언어

획득론자들의 주장은 언어 발달의 개인차를 무시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유아의 초기 언어 산출의 형태, 기능, 내용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의 어휘 양식의 개인차에 관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최초로 수행된 Nelson(1973)의 연구는 유아가 산출한 어휘에 일정한 양식이 있음을 보고했다. 유아는 생의 초기에 참조적 어휘 양식이나 표현적 어휘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아 초기의 어휘 사용 방식이 이후의 단어 조합 시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Lieven, Pine, & Barnes, 1992; Pine & Lieven, 1990; Starr, 1975)도 제시되었다. 유아의 어휘 양식의 개인차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어휘 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유아의 어휘 양식의 차이가 유아의 다른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했다. 그러나 유아의 어휘 발달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어휘량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Ninio(1995)의 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어휘 발달의 질적 측면인 어휘 양식 역시 유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아의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어휘 양식은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과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선행 연구들(Goldfield, 1985/86, 1987; Nelson, 1973)에 의하면, 대물지향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유아는 대인지향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유아보다 사물의 명칭, 사물의 속성에 대한 발화를 더 많이 보였다. 대인지향적인 어휘를 더 사용하는 유아는 감정의 표현, 사람의 행위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한 발화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어휘 양식이 대물지향적이나 대인지향적이나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대화 상황(Kertoy & Vetter, 1995)과 주제 유형

(Wanska & Bedrosian, 1986)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이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Folger & Chapman, 1978; McDonald & Pien, 1982; Sachs & Devin, 1973), 그리고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의 관계(Ninio, 1992)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처럼 대화 상황, 주제 유형,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과 같은 유아의 외부 요인이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의도는 유아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반영하므로 유아의 내적 특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아 자신의 내재적 특성을 반영하는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라는 두 가지 언어 산출 양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어휘 양식을 대물지향적 양식과 대인지향적 양식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어휘 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후 어휘 양식의 차이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선행 연구의 고찰

### (1) 유아의 어휘 양식

아동의 언어 획득에 체계적인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은 아동의 어휘 양식을 양분하였다. 아동의 어휘 양식을 처음으로 양분한 Nelson(1973)은 아동의 어휘 양식을 표현적(expressive) 어휘 양식과 참조적(referential) 어휘 양식으로 구분하였는데 표현적 어휘 양식의 아동은 참조적 어휘 양식의 아동보다 사물의 명칭을 더 적게 사용하고 대명사, 수식어, 기능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대인-사회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조적 어휘 양식의 아동은 사물

에 대한 단어의 사용이 지배적이고, 표현적 어휘 양식의 아동보다 더 많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이 시기에 아동의 어휘 양식을 구분한 Nelson(1973)과 더불어 아동의 초기 단어 조합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보고한 Bloom과 동료들(1975)은 아동이 대명사적(pronominal) 접근 전략과 명사적(nominal) 접근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Dore(1974)는 사회적 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한 경우를 메시지 지향적(message-oriented) 어휘 양식으로 범주화하고, 환경 내의 사물을 묘사하는데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를 부호지향적(code-oriented) 어휘 양식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Bretherton과 동료들(1983), Peters(1977)는 아동이 자신의 발화를 하나의 전체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지에 따라 총체적(holistic)/형태적(gestalt) 양식과 분석적(analytic) 양식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는데, 총체적 처리 전략은 대명사적, 표현적 양식과 관련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개념 조직화의 차이가 표현적 어휘와 참조적 어휘에 대한 아동의 선호에 영향을 준다(Nelson, 1973)는 견해와 유사한 맥락에서 Wolf와 Gardner(1979)는 아동이 선호하는 어휘에 따라 극작가(dramatist) 집단과 모형론자(patterner)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개념 조직화 방식과 더불어 모방 경향도 아동의 어휘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Nelson과 동료들(1985)은 아동의 어휘 양식의 차이와 모방 성향의 정도간에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방 경향이 낮은 아동의 어휘 양식은 개인-사회-구문적(personal-social-syntactic) 양식으로, 모방 경향이 높은 아동의 어휘 양식은 모방-참조적(imitative-referential) 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어휘 양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Goldfield(1985/86)는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를 사회중심적(social-centered) 어휘와 사물중심적(object-centered) 어휘로 구분하였다. 사람, 사람

의 행위나 요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언급하는 단어는 사회중심적 어휘에 해당하고, 물리적 환경 내의 사물, 그리고 사물의 상태 및 특질을 언급하는 단어는 사물중심적 어휘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의 어휘 양식 범주화는 연구자에 따라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구분 기준이나 구분 내용은 유사해서, Nelson(1973)의 표현적 양식 또는 참조적 양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표현적 양식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명사적, 메시지 지향적, 형태적, 총체적, 사회중심적 어휘 양식을 들 수 있고, 참조적 양식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호지향적, 분석적, 사물중심적 어휘 양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표현적 어휘 양식은 사람과 대인관계에 관한 발화라는 점에서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참조적 양식은 주로 사물에 관한 발화라는 점에서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 (2)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아동의 의사소통에 관한 1970년대의 연구는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범주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주어졌다. 이처럼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90년대 들어 비로소 일부 연구자들이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의사소통 의도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철학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구분된다(Miller, 1981). 실제로 Dore(1974)는 단일이 시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원초적 언어 행위'(Primitive Speech Acts : PSA)로 범주화하였는데 원초적 언어 행위의 영역은 명칭부르기, 반복하기, 응답하기, 행위 요구하기, 응답 요구하기, 부르기, 인사하기, 항의하기, 연습하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Dore(1974)

의 범주 가운데 반복은 의도보다는 오히려 형태에 의한 정의에 해당하므로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살펴볼 경우 반복은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Chapman, 1981). 이후 Dore(1978)는 위의 범주를 정보·행위·승인의 요구, 요구에 대한 응답, 현재 사실의 기술, 사실·규칙·태도·감정·신념의 진술, 승인, 구성 및 실행으로 보다 정교화하였다(Chapman, 1981).

아동의 초기 의사소통 행위를 기술하기 위해 의사소통의도척도(Communicative Intention Inventory)를 개발한 Coggins와 Carpenter(1981)는 Dore(1974)의 범주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기술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행위 진술, 사물 진술, 행위 요구, 사물 요구, 정보 요구, 응답, 승인, 항의의 8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Wanska와 Bedrosian(1986)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정보 제공, 명령, 요구, 간접 요구, 응답, 승인의 범주로 구분하고 요구 범주를 다시 정보/견해 요구, 허용 요구, 행위 요구, 주의집중 요구로 나누었다. Wanska와 Bedrosian (1986)의 범주 중 요구 의도는 정교하게 구분되었지만 나머지 범주들은 의미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소통 의도의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반화된 범주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범주들은 의사소통 의도보다는 발화의 형태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구분된 범주의 의미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범주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나이 어린 아동도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tz(1978)는 나이 어린 아동이 의사소통에서 메시지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초기 전략을 조사하였는데, 생후 19개월에서 34개월의 나이 어린 아동은 언어를 해석하고 반응할 때 행위에 기반한 전략(action-based strategy)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 어린 아동의 전반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 중 행위 요

구 능력과 명료화 요구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이루어졌다. 먼저 Garvey(1975)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3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중 행위 요구를 직접적인 요구와 간접적인 요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 직접적인 요구 형태를 빈번하게 보였고, 대부분의 요구는 승인되었다. 또한 만 2세 아동도 부모의 명료화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였다(Shatz & O'Reilly, 1990).

다음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있다. Wanska와 Bedrosian(1986)은 전조작기 아동과 어머니 30쌍을 대상으로 주제 수행 및 주제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는 모든 주제 유형에서 주로 자신의 요구에 의해 주제를 수행한 반면, 아동은 어머니의 질문에 부응함으로써 주제를 수행하였다. 즉,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요구 의도를 주로 사용하고, 아동은 부응 의도를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 상황을 놀이 상황으로 한정된 Wanska와 Bedrosian(1986)의 연구와는 달리 Kertoy와 Vetter(1995)는 4세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 상황을 놀이 상황과 돕기 상황으로 나누어 의사소통 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는 놀이 상황보다 돕기 상황에서 명령과 행위 요구 의도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으며, 돕기 상황보다 놀이 상황에서 정보 제공 의도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 상황과 돕기 상황에서 모두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생후 18개월된 아동의 발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의도와 어머니의 발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의도에 유사성이 밝혀졌다(Ninio, 1992).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나고, 어머니가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검증이 필요하다.

### (3) 유아의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

언어학자 Saussure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초기의 견해에 의하면 언어와 의사소통은 별개의 독립적인 정신 영역을 표상한다(Ninio, 1995). 언어 능력은 맥락에 관계없이 단어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 반면,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언어 획득에 대한 초기의 견해에서는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두 과정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나이 어린 아동의 언어 발달은 주로 사물과 사람의 명칭, 행위, 속성과 같은 어휘를 학습하면서 이루어지는 반면, 이 시기의 의사소통 발달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타인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Ninio(1995)는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과정이 독립적이라는 초기의 견해에 반대하였으며, 이 두 과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이 두 과정의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화용론의 발달과 어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어 시기에 아동이 표현한 의사소통 의도와 아동의 어휘 급증간에 관계가 있는가는 의문이었다. Ninio(1995)는 의사소통 의도를 언어로 표현하는 아동의 능력과 초기 어휘 획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생후 10개월에서 22개월의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 어휘량이 많을수록 상이하게 표현된 의사소통 의도의 양도 많았다. Ninio(1995)의 연구는 어휘 발달의 양적인 측면과 의사소통 의도와와의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어휘 발달의 질적인 측면인 어휘 양식 역시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어휘 발달에서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어휘 양식의 차이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어휘 양식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유아의 제공 의도는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유아의 표현 의도는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3] 유아의 요구 의도는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4] 유아의 부응 의도는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에서 3세의 남녀 유아 각 10명과 그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 방법은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였다. 유아의 연령을 생후 32개월에서 42개월까지의 만 2세 및 3세로 선정한 것은 생후 30개월이 되어야 유아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 일관된 주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Foster, 1986)에 근거한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은 생후 32개월에서 42개월까지였으며, 그 가운데 만 2세 유아는 7명, 만 3세 유아는 13명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38개월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9명, 둘째가 11명이었고, 보육 경험이 있는 유아가 13명, 보육 경험이 없는 유아가 7명이었으며, 보육 경험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아버지는 평균 연령이 36세로, 1명을 제외한 19명이 대졸이상의 학력이었고, 전체 중 90%인 18명이 사무직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어머니는 평균 연령이 33세로, 대학 졸업이 15명(75%), 대학원 졸업이 3명(15%)이었다. 직업의 유무를 보면, 17명(85%)이 전업 주부이고 3명(15%)이 취업주부여서 연구 대상 유아의 부모배경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2) 연구 도구

### 1) 어휘 양식

어휘 양식이란 유아의 산출한 발화에 나타난 일관된 어휘 유형으로 정의된다. Goldfield(1985/86)는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사물중심적 어휘와 사회중심적 어휘로 나누었는데, 어휘 양식에 대한 Goldfield의 명칭을 이 연구에서는 대인지향적 어휘와 대물지향적 어휘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이란 사람의 행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발화("엄마, 아기 물 줘."), 또는 대인관계에 요구되는 표현을 의미하며,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이란 사물의 명칭, 상태, 그리고 속성에 관한 발화("저 나무가 더 커.")를 의미한다.

유아의 어휘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블록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전사한 자료에서 연구자가 유아의 발화 가운데 대인지향성과 대물지향성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발화만을 선정하여 각 어휘 양식에 해당하는 발화의 빈도를 표시하였다. 어휘 양식의 구분은 유아가 대인지향적 어휘 또는 대물지향적 어휘 가운데 하나의 어휘를 다른 어휘보다 60% 이상 우월하게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범주화하였다.

### 2) 의사소통 의도

이 연구에서는 Wanska와 Bedrosian(1986)이 범주화한 의사소통 의도의 체계를 본 연구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사용했다. Wanska와 Bedrosian(1986)은 의사소통 의도를 정보 제공 의도, 명령 의도, 요구 의도, 간접 요구 의도, 부응 의도, 승인 의도, 두 가지 의도 이상의 조합, 그리고 의도가 불확실한 발화로 범주화하고, 요구 의도는 다

시 정보/전해 요구 의도, 허용 요구 의도, 행위 요구 의도, 주의집중 요구 의도, 부가의문문으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자는 예비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제공 의도에서 유아가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 행동을 설명하는 유아의 발화에 해당하는 범주가 없어서 연구자가 '행위 제공 의도' 범주를 새로 설정하여 정보 제공 의도와 행위 제공 의도를 '제공 의도'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켰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 이외에 감정이 표출된 유아의 발화를 포함하는 범주가 없어서 '표현 의도' 범주를 새로 설정하였다. 셋째, Wanska와 Bedrosian(1986)은 명령문의 형태로 표현된 행위 요구 및 주의집중 요구 발화를 명령 의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의 명령 의도는 요구 의도의 하위범주 가운데 행위 요구 의도와 주의집중 요구 의도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범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명령 의도 범주를 분석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요구 의도의 하위범주 가운데 부가의문문 범주는 그 명칭이 의사소통 의도보다는 문장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이 연구에서는 '명료화 요구'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했다. 다섯째, 간접 요구 범주는 요구 범주의 각 하위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분석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Wanska와 Bedrosian(1986)은 부응 의도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한 응답인 예/아니오 응답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응답은 정보 제공 의도나 행위 제공 의도 범주와 중복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응 의도를 승인·인정 의도와 거부·부인 의도로 구분하여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승인·인정 의도에, 부정적인 응답은 거부·부인 의도에 포함시키고, Wanska와 Bedrosian(1986)이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구분한 승인 의도는 부응 의도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범주를 선정하여 관찰표를 구성하였으며,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각 범주는 유아의 발화를 단위로 하여 그 빈

도를 관찰표에 기록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의도가 포함된 발화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 의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 범주로 구분하기보다는 개별 의도로 나누어 표시하였고, 의도가 불명확한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 절차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관찰 상황을 선정하고, 유아의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의 범주에 관한 관찰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1명의 유아(40개월된 남아)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Wanska와 Bedrosian (1986)은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상황으로 다양한 놀이감이 포함된 자유놀이 상황을 설정하였으나, 다양한 놀이감이 포함된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놀이감의 종류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어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대인지향적이거나 대물지향적인 어느 한쪽만의 어휘 사용을 유도하지 않는 중립적인 놀이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놀이감(인형, 자동차, 병원놀이 도구, 블록)을 제시하였다.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어떤 상황이 중립적인지를 살펴보았다. 각 놀이 상황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을 전사한 자료를 아동학 전공자 3인이 분석한 결과, 블록놀이 상황이 가장 중립적인 놀이 상황으로 판별되었다. 예비 관찰을 통해 의사소통 의도의 범주 중 일부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본 관찰에서 사용했다.

본 관찰은 만 2개월 남짓 동안 실시되었으며, 관찰자가 연구 대상 유아의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블록놀이 상황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블록놀이 상황에서 발생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30분 동안 관찰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 중 처음 10분은 유아가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며 비디오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음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분 동안의 발화 내용을

관찰기록지에 모두 전사하였다. 전체 20명의 관찰자료 가운데 임의로 2명(10%)의 관찰자료를 선정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3인이 전사자료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98%의 일치도를 보였다. 유아의 어휘 양식 판별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이 97%,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이 9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정보 제공 의도에서 99%, 행위 제공 의도에서 95%, 표현 의도에서 99%, 정보 요구 의도에서 99%, 행위 요구 의도에서 96%, 허용 요구 의도에서 99%, 주의집중 요구 의도에서 99%, 명료화 요구 의도에서 94%, 승인·인정 의도에서 99%, 거부·부인 의도가 98%로 나타났다.

수합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백분율, 빈도분포, Mann-Whitney 검증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어휘 양식 범주화

연구 대상 유아 20명을 어휘 양식에 따라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과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휘 양식의 구분은 유아가 대인지향적 어휘 또는 대물지향적 어휘 가운데 하나의 어휘를 다른 어휘보다 60% 이상 우월하게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범주화한 후 아동학 전공자 2인이 검토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가운데 11명의 유아가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9명의 유아가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전체 20명의 연구대상 유아 가운데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의 유아와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의 유아가 비슷한 분포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어휘 양식 집단에 포함된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의 경우 남아가

5명, 여아가 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8개월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명, 둘째가 5명이었고 보육 경험에 있는 유아가 6명, 보육 경험이 없는 유아는 3명이었다.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의 경우 남아가 5명, 여아가 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7개월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명, 둘째가 6명이었고 보육 경험에 있는 유아는 7명, 보육 경험이 없는 유아는 4명이었다.

## (2)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경향

연구 대상 유아는 총 2,265회의 의사소통 의도를 보였는데 제공 의도(1,114회, 49.2%)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구 의도(548회, 24.2%), 부응 의도(530회, 23.4%), 표현 의도(73회,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현 의도를 가장 적게 보인 것은 어머니와의 놀이 상황 자체의 특성상 감정의 표현보다는 놀이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놀이감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공 의도에서는 정보 제공 의도가 872회(78.3%), 행위 제공 의도가 242회(21.7%)로 나타나서 정보 제공 의도가 행위 제공 의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생의 초기에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다가 점차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만 2세 및 3세 유아가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더불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구 의도에서 정보 요구 의도는 201회(36.7%), 행위 요구 의도는 94회(17.2%), 허용 요구 의도는 11회(2.0%), 주의집중 요구 의도는 117회(21.4%), 명료화 요구 의도는 125회(22.8%)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구 의도의 하위범주 중에서는 정보 요구 의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명료화 요구 의도, 주의집중 요구 의도, 행위 요구 의도 및 허용 요구 의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응 의도에서는 승인·인정 의도가 387회(73.0%), 거부·부인 의도가 143회(27.0%)로 나

타나서 승인·인정 의도가 거부·부인 의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긍정적 응답을 통해 어머니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대인지향적 집단과 대물지향적 집단별로 의사소통 의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총 965회의 의사소통 의도를 보여서 제공 의도가 427회(44.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구 의도가 277회(28.7%), 부응 의도가 219회(22.7%)로 나타났고, 표현 의도는 42회(4.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제공 의도에서는 정보 제공(298회, 69.8%)이 행위 제공(129회, 30.2%)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요구 의도에서는 정보 요구(84회, 30.4%), 행위 요구(61회, 22%), 주의집중 요구(66회, 23.8%), 명료화 요구(61회, 22%), 허용 요구(5회, 1.8%)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응 의도에서는 승인·인정 의도(136회, 62.1%)가 거부·부인 의도(83회, 37.9%)보다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총 1,300회의 의사소통 의도를 보였는데 제공 의도가 687회(5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응 의도가 311회(23.9%), 요구 의도가 271회(20.8%)로 나타났고, 표현 의도는 31회(2.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제공 의도에서는 정보 제공(574회, 83.6%)이 행위 제공(113회, 16.4%)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요구 의도는 정보 요구(117회, 43.2%), 명료화 요구(64회, 23.6%), 주의집중 요구(51회, 18.8%), 행위 요구(33회, 12.2%), 허용 요구(6회,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응 의도에서는 승인·인정(251회, 80.7%)이 거부·부인 의도(60회, 19.3%)보다 많이 나타났다.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이 965회의 의사소통 빈도를 보인 반면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1,300회의 의사소통 빈도를 보여 대물지향적 어휘 집단의 의사소통 빈도가 훨씬 높았는데 이는 대물지향적 어휘를 사용하는 유아의 언어 발달이 더 빠르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역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3)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

유아의 제공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1>을 보면,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의 정보 제공 빈도는 574회(83.6%)로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의 정보 제공 빈도(298회, 69.8%)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물지향적인 유아가 대인지향적인 유아보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정보 제공 의도를 더 빈번하게 보였다. 이는 대물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가 사물의 명칭이나 사물의 속성을 기술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생의 초기부터 대인지향성이나 대물지향성과 같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일찍이 형성되어 그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이 결정되는 듯하다. 반면 행위 제공 의도에서는 어휘 양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 어휘 양식에 따른 유아의 제공 의도

| 제공 의도 | 대인지향<br>(N=9) | 대물지향<br>(N=11) | Z값    |
|-------|---------------|----------------|-------|
|       | 빈도(%)         | 빈도(%)          |       |
| 정보 제공 | 298(69.8)     | 574(83.6)      | 1.98* |
| 행위 제공 | 129(30.2)     | 113(16.4)      | 1.14  |
| 계     | 427(100.0)    | 687(52.9)      | 1.86  |

\*  $p < .05$

유아의 표현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42회(4.4%)의 표현 의도를 보였고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31회(2.4%)의 표현 의도를 보여서 빈도상으로는 차이가 큰 듯하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블록놀이 상황 자체가 감정의 표현을 많이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유아의 어휘 양식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표현 의도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아의 요구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2>를 살펴보면, 정보 요구, 허용 요구, 주의집중 요구, 명료화 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행위 요구 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인지향적 집단이 대물지향적 집단보다 행위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지향적인 어휘 양식의 유아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술을 많이 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발화를 많이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결국 대물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는 사람보다는 사물의 명칭이나 사물의 속성을 기술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인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술을 많이 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발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발화는 상대방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표2. 어휘 양식에 따른 유아의 요구 의도

| 요구 의도      | 대인지향<br>(N=9) | 대물지향<br>(N=11) | Z값    |
|------------|---------------|----------------|-------|
|            | 빈도(%)         | 빈도(%)          |       |
| 정보 요구      | 84(30.4)      | 117(43.2)      | .11   |
| 행위 요구      | 61(22.0)      | 33(12.2)       | 2.34* |
| 허용 요구      | 5( 1.8)       | 6( 2.2)        | .38   |
| 주의집중<br>요구 | 66(23.8)      | 51(18.8)       | .99   |
| 명료화 요구     | 61(22.0)      | 64(23.6)       | .31   |
| 계          | 277(100.0)    | 271(100.0)     | 1.14  |

\*  $p < .05$

유아의 부응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136회(62.1%)의 승

인·인정 의도를 보였고,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251회(80.7%)의 승인·인정 의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83회(37.9%)의 거부·부인 의도를 보였고,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 집단은 60회(19.3%)의 거부·부인 의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Ninio, 1992)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어휘 양식의 차이보다는 부응 의도를 유발하는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의 차이, 즉 어머니가 유아의 부응 의도를 얼마나 유도했느냐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 결론 및 논의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의 의사소통 의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 2세 및 3세 유아 20명과 그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한 후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녹화하여 각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만 2세 및 3세 유아 가운데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과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을 가진 유아의 분포는 유사하다.

둘째, 유아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휘 양식에 관계없이 제공 의도를 가장 빈번히, 그리고 표현 의도를 가장 드물게 사용한다. 유아가 표현 의도를 가장 드물게 보인 것은 어머니와의 놀이 상황 자체의 특성상 감정의 표현보다는 놀이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놀이감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행위 제공보다 정보 제공 의도를 더 많이 보였다. 즉 만 2세 및 3세 유아는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더불어

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유아는 요구 의도 중 정보 요구를 가장 빈번하게 보였다. 유아가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정보 요구를 많이 보이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주위 환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거부·부인보다는 승인·인정 의도를 표현해 유아가 어머니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셋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는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보다 정보 제공 의도는 빈번하게 보인 반면 행위 요구 의도는 드물게 보였다. 따라서 유아의 어휘 양식은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는 사람보다는 사물의 명칭이나 사물의 속성을 기술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인지향적인 어휘 양식을 사용한 유아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술을 많이 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발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표현 의도는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블록놀이 상황 자체가 유아의 감정 표출을 많이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유아의 어휘 양식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표현 의도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응 의도에서도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유아의 부응 의도를 유발하는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의 차이, 즉 어머니가 질문을 통해 유아의 응답을 얼마나 유도했느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가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Ninio (1995)의 연구를 확장시켜 어휘 발달의 질적 측면과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규명했고 이를 통해 어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밀

접한 관련을 보임을 암시받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휘 양식을 범주화함에 있어서 어휘 양식이라는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대인지향적인 어휘 양식과 대물 지향적인 어휘 양식으로 양분화하여 이들 두 집단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어휘 양식이 유사한 비율로 혼합된 집단은 연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표본의 수가 줄어 들었다는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내외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유아의 어휘 양식과 언어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어휘 양식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를 연구했다는 점, 둘째, 만 2, 3세의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정해 초기 어휘 발달과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 셋째, 유아의 언어 발달에서 언어 구조에 해당하는 어휘 양식이 언어 사용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줄을 밝히서 언어 발달의 하위영역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이다. 또한 선행 연구와 예비관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의사소통 의도의 관찰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형태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만 2세 및 3세 유아가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유아의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Bates, E., Marchman, V., Thal, D.,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Reilly, J., &

Hartung, J. (1994).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 of Child Language*, 21, 85-123.

Bloom, L., Lightbown, P., & Hood, L. (1975). Structure and variation in child langu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0, Serial No. 160.

Bretherton, I., McNew, S., Snyder, L., & Bates, E. (1983). Individual differences at twenty months: Analytic and holistic in language acquisition. *J. of Child Language*, 10, 293-320.

Chapman, R. S. (1981). Exploring children's communicative intents. In J. F. Miller (Ed.),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Experimental procedures*.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Coggins, T. E. & Carpenter, R. L. (1981). The communicative intention inventory: A system for observing and coding children's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2, 235-251.

Della Corte, M., Benedict, H., & Klein, D. (1983). The relationship of pragmatic dimensions of mothers' speech to the referential-expressive distinction. *J. of Child Language*, 10, 35-43.

Dore, J. (1974). A pragmatic descrip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J.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4), 343-350.

Folger, J. P. & Chapman, R. S. (1978). A pragmatic analysis of spontaneous imitations.

- J. of Child Language*, 5, 25-38.
- Foster, S. H. (1986). Learning discourse topic management in the preschool years. *J. of Child Language*, 13, 231-250.
- Garvey, C. (1975). Requests and responses in children's speech. *J. of Child Language*, 2, 41-63.
- Goldfield, B. A. (1985/86). Referential and expressive language: A study of two mother-child dyads. *First Language*, 6, 119-131.
- Gold field, B. A.(1987). The contributions of child and caregiver to referential and expressive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8, 267-280.
- Kertoy, M. K. & Vetter, D. K. (1995). The effect of conversational setting on topic continuation in mother-child dyads. *J. of Child Language*, 22, 73-88.
- Lieven, E. V. M. (1978). Conversations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 for the study of language learning. In N. Waterson & C. E. Snow (ed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NY: John Wiley.
- Lieven, E. V. M, Pine, J. M., & Dresner-Barnes, H. (1992). Individual differences in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Redefining referential-expressive distinction. *J. of Child Language*, 19, 287-310.
- McDonald, L. & Pien, D. (1982). Mother conversational behavior as a function of interactional intent. *J. of Child Language*, 9, 337-358.
- Miller, J. F (1981).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Experimental procedures*.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Serial No. 149.
- Nelson, K.(1981).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70-187.
- Nelson, K. E., Baker, N. D., Denninger, M., Bonvillian, J. D., & Kaplan, B. J. (1985). Cookie versus do-it-again: Imitative-referential and personal-social-initiating language styles in young children. *Linguistics*, 23, 455-487.
- Ninio, A. (1992). The relation of children's single word utterances to single word utterances in the input. *J. of Child Language*, 19, 87-110.
- Ninio, A(1995).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s in the single-word period and the vocabulary spurt. In K. E. Nelson & Z. Reger(eds.), *Children's language (Vol.8)*. Hillsdale, NJ: Erlbaum.
- Peters, A. M. (1977).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Does the whole equal the sum of the parts? *Language*, 53, 560-573.
- Peters, A. M. & Lieven, E. V. M. (1990). Referential style at thirteen months: Why age-defined cross-sectional measures are inappropriate for the study of strategy difference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J. of Child Language*, 17, 625-631.

- Sachs, J. & Devin, J. (1973). Young children's knowledge of age-appropriate speech sty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December.
- Shatz, M. (1978).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understandings: An early strategy for interpreting and responding to messages. *Cognitive Psychology*, 10, 271-301
- Shatz, M & O'Reilly, A. W. (1990). Conversational or communicative skill? A reassessment of two-year-olds' behavior in miscommunication episodes. *J. of Child Language*, 17, 131-146.
- Starr, S. (1975). The relationship of single words to two-word sentences. *Child Development*, 46, 701-708.
-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6). Topic and communicative intent in mother-child discourse. *J. of Child Language*, 13, 523-535.
- Wolf, D. & Gardner, H. (1979). Style and sequence in symbolic play. In M. Franklin & N. Smith (eds.), *Early symbolization*. Hillsdale, NJ: Erlbaum.

# **The Analysis of Infants' Communicative Intents According to Their Lexical Styles**

**Miyoung Sung & Soon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ants' communicative intents according to their lexical styles in verbal interactions with mothers. The subjects were twenty, 32 month to 42 month infant-mother dyads. Infants' playing with blocks was videotaped for 30 minutes, but only last 20 minutes of the videotaped data were transcribed on the observational checklist. The transcripts were analysed to classify infants' lexical styles, and to examine infants' communicative intents according to their lexical styles.

The statistical method adopted for data analysis was nonparametric Mann-Whitney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ants' communicative intents according to their lexical styles. Infants with object-oriented lexical style uttered more information-provision intents than infants with person-oriented lexical style, and infants with person-oriented lexical style uttered more action-request intents than infants with object-oriented lexical styl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ression and response intents according to lexical styles.

**Key words:** lexical style · communicative intent